

진행 성과 보고서

2024



한국어 번역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만일 원본인 영문 버전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합니다.



소개

600곳 이상의 투자자들이 기업과의 적극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계획 수립 및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강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적 위험을 경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Climate Action 100+의 활동은 5개 투자자 네트워크,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AIGCC), 세레스 (Ceres),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IGCC), 기후변화 기관투자자 그룹 (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 IIGCC), 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과의 조율과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출범한 Climate Action 100+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글로벌 투자자 주주관여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Climate Action 100+는 당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이니셔티브로 출범하였으나, 2022년에 공식적으로 그 활동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법적 면책 고지

Climate Action 100+는 증권에 취득, 보유, 처분 및/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이나 공동의 행동을 요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명기관(Signatories)은 독립적 수탁자로서 각자 투자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전략, 정책 및 관행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항상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Climate Action 100+ 주주관여 활동 참여 여부와 특정 주주관여 수단 및 전략의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서명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Climate Action 100+는 공개된 정보 교환을 촉진하지만, 서명기관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의 교환(비밀유지계약 아래 특정 상대방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서명기관들, 주주관여 참여자들, Climate Action 100+ 자체 및 투자자 네트워크 등을 포함합니다. 협력 과정에서 정보 교환인 경우에도 이는 잠재적으로 불법적 합의로 비춰질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기업법 또는 경쟁법 위반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서명기관은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명기관을 대표한다고 주장하거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명기관을 언급하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서명기관은 증권에 취득, 보유,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별적 지위에서 오직 자신의 재량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활동은 Climate Action 100+나 그 투자자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다른 서명기관이나 구성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명기관들은 경쟁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행동을 다른 경쟁자들과 조율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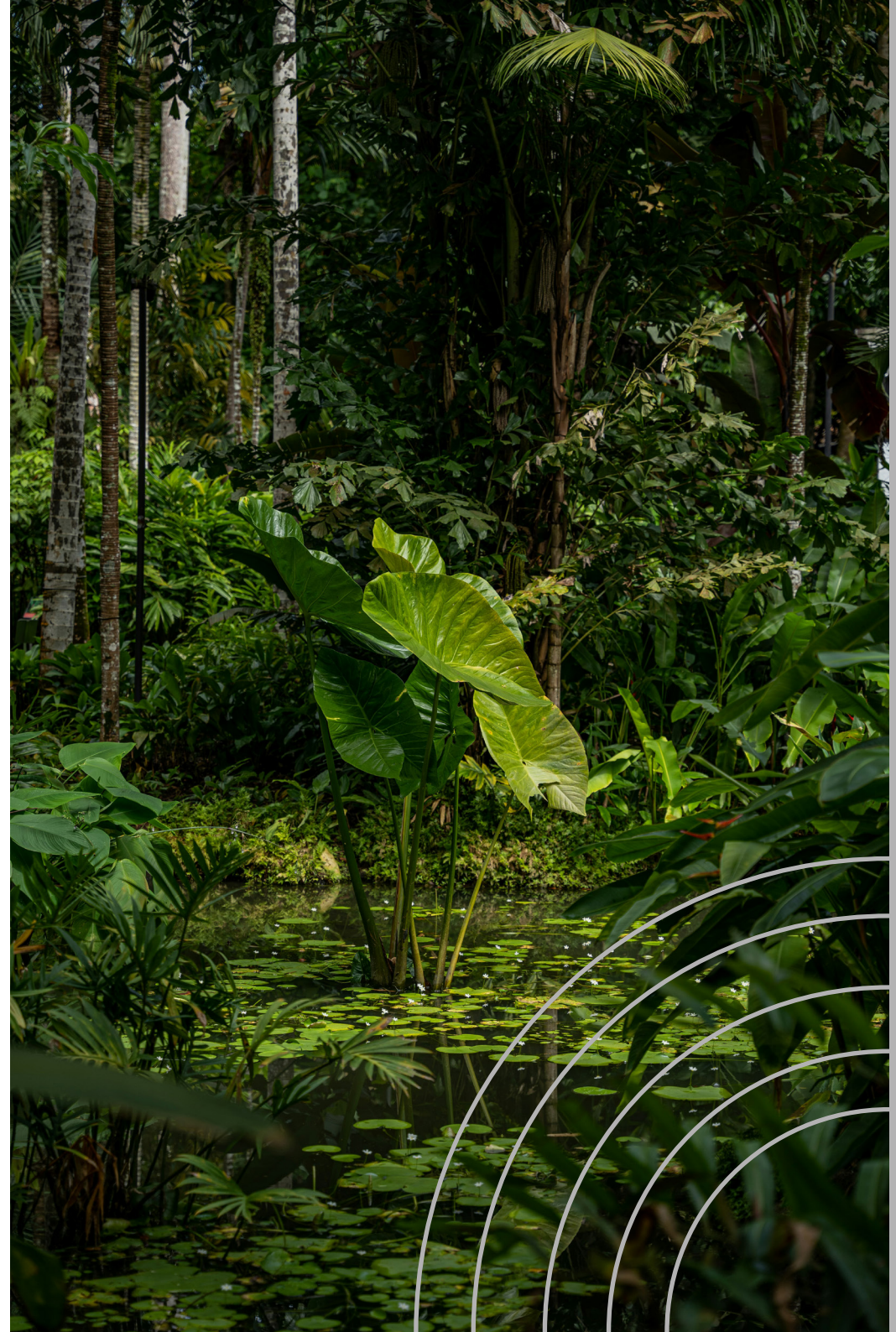
Climate Action 100+와 투자자 네트워크는 서로를 대신하거나 서명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든 증권 보유자의 대리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거나, 철회·기권·동의·인가와 관련된 서식을 제공 또는 요청하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요청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Climate Action 100+와 투자자 네트워크 기관들은 투자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지 않으며, Climate Action 100+은 서명기관에게 다른 서명기관의 투자 또는 의결권 행사 행태를 바탕으로 투자나 의결권 행사 권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Climate Action 100+와 투자자 네트워크는 투자, 법률, 회계 또는 세무 관련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Climate Action 100+와 투자자 네트워크는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된 주주관여 조건, 책임, 권리 및 기타 정보들은 모두 앞서 서술한 법적 면책 조항과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목차

진행 성과 보고서 2024

소개	2
법적 면책 고지	2
한 눈에 보는 Climate Action 100+	4
들어가면서	5
운영위원회의 역할	6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성장	7
신규 가입 기관의 글로벌 스토리	8
신규 가입 기관 및 신흥시장 가입 기관의 소회	9
글로벌 리뷰 웨비나 주요 내용	11
사례 연구	12
올해 주요 기업 사례 선정	13
주주총회 시즌 사례 연구	19
호주 지역 주요 사항	20
아시아 지역 주요 사항	20
유럽 지역 주요 사항	21
북미 지역 주요 사항	21
테마 및 섹터별 워킹 그룹	22
테마별 활동	23
섹터별 활동	27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 평가	31
개요	32
주요 결과 요약	33
향후 전망	34
넷제로 표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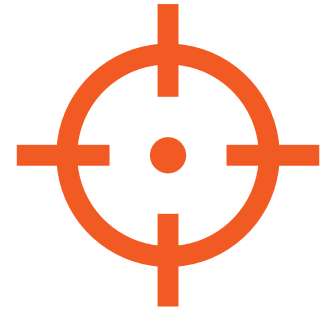




600 곳

이상의 서명기관

한 눈에 보는
Climate
Action 100+



총 168개

중점관리기업
(2024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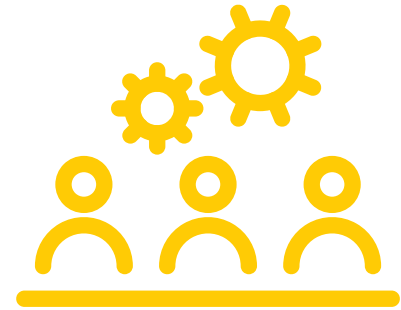
80%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 늦어도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설정한 중점관리기업 비율



90%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공시한
중점관리기업 비율



88%

TCFD 또는 ISSB의 권고사항 이행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중점관리기업 비율

들어가면서



마이클 코헨 (Michael Cohen)

Climate Action 100+ 글로벌
운영위원회 의장 겸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
최고운영투자책임자

2024년은 전례 없는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올해는 60개국 이상에서 역사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며, 세계적인 분열이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지속되었으며, 분쟁은 중동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지구 온난화의 1.5°C 한계를 넘어서는 최초의 해가 되었습니다. 기후 관련 사건들 역시 주요 위협으로 대두되며 헤드라인을 장식하였는데,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형 허리케인과 네팔 및 두바이에서의 전례 없는 홍수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계 경제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의 의미 있는 변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투자자의 주주관여는 기업의 전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배출 기업들은 기후 리스크가 곧 재무 리스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넷제로(Net Zero) 전환 경로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Net Zero Company Benchmark)'에서 이니셔티브가 설정한 세 가지 목표에 대한 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도구이며, 올해의 결과는 고무적인 발전을 나타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기후 전환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서, 20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을 시장에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후 가시적인 영향력이 주요 결과로 드러났으며, 평가받은 기업 중 약 80% (133개 기업)가 넷제로 약속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Climate Action 100+가 7년 전 시작하였을 당시 넷제로를 선언하였던 기업이 5개에 불과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기업의 88%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의 권고에 따라 자신들의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공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90%는 기후 리스크 관리를 감독할 책임을 지닌 이사진을 임명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평가 대상 기업의 과반수인 67%가 최근 3년 동안 탄소배출 집약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난 6년간 Climate Action 100+의 주주관여가 얼마나 진전을 이루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대한 전환이 요구되는 향후 10년 동안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포괄적인 기후 전환 실행 계획을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러한 계획과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일부 сек터에서 본격화되는 탈탄소화 움직임

2024년은 섹터 단위에서 탈탄소화가 뚜렷하게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이는 올해의 벤치마크 결과와 섹터별 주주관여 활동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철강, 전력, 운송과 같은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소비자 수요, 기술 발전, 그리고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저탄소 솔루션과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운영 효율성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섹터들이 실질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요 산업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며 청정 경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및 가스 부문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투자자들이 협력적으로 주주관여를 펼칠 수 있는 자유가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기후 리스크가 곧 재무 리스크이며, 기관투자자들은 고객과 수혜자들을 위해 장기적으로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내고자 이러한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상식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limate Action 100+는 첨단 연구와 글로벌 기업 리더 및 이해관계자과의 연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명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Climate Action 100+는 또한 기업 대상 주주관여가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전 세계적으로 90곳 이상의 투자자들이 새롭게 동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5년을 앞둔 현재, 테마별 및 업종별 주주관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인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장기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중단기 목표 및 기후 전환 계획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프레임워크 지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직면한 기후 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비즈니스에 통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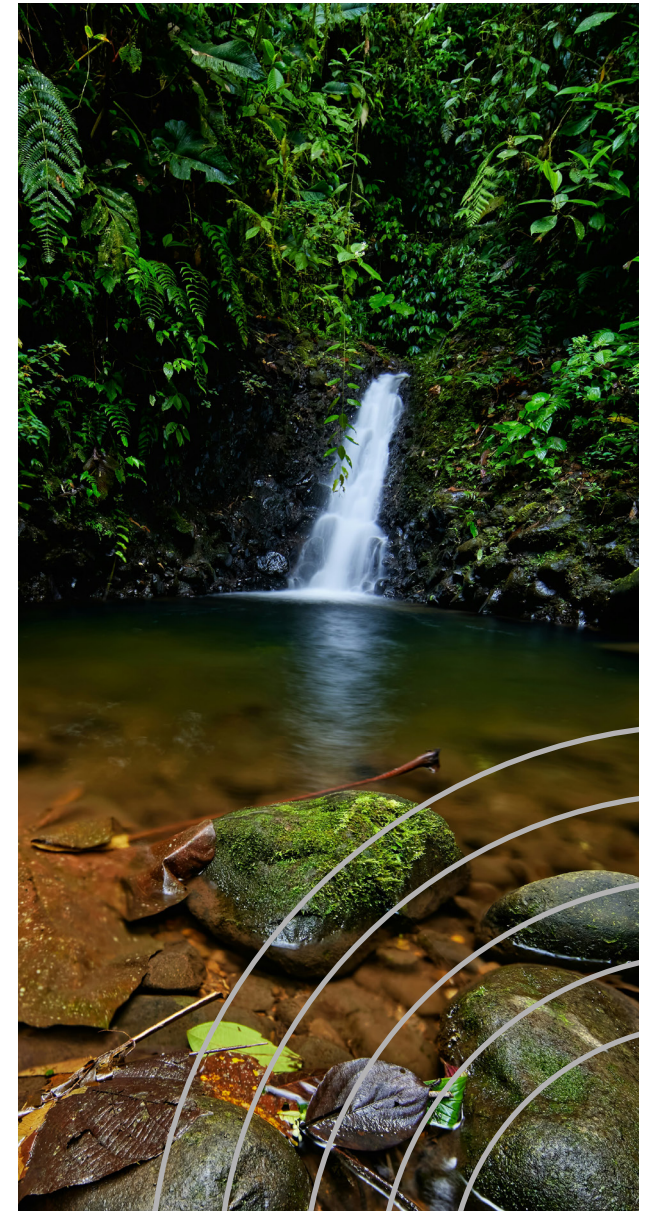
운영위원회의 역할

Climate Action 100+는 투자자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5개 투자자 네트워크의 CEO 및 이사들과 각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투자자 1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운영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5개 투자자 네트워크는 각자의 지역에서 투자자 대표를 두 명씩 지명합니다.

이니셔티브의 글로벌한 성격과 지역마다 기업 대상 주주관여의 우선순위 및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매년 서로 다른 지역 대표들 간에 교대로 맡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원들이 각자의 조직에서 스튜어드십 및 주주관여 활동을 감독하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니셔티브에 귀중한 통찰력과 방향성,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의장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CalPERS)의 마이클 코헨 (Michael Cohen)이 맡고 있으며, 세레스(Ceres)의 민디 루버(Mindy Lubber)는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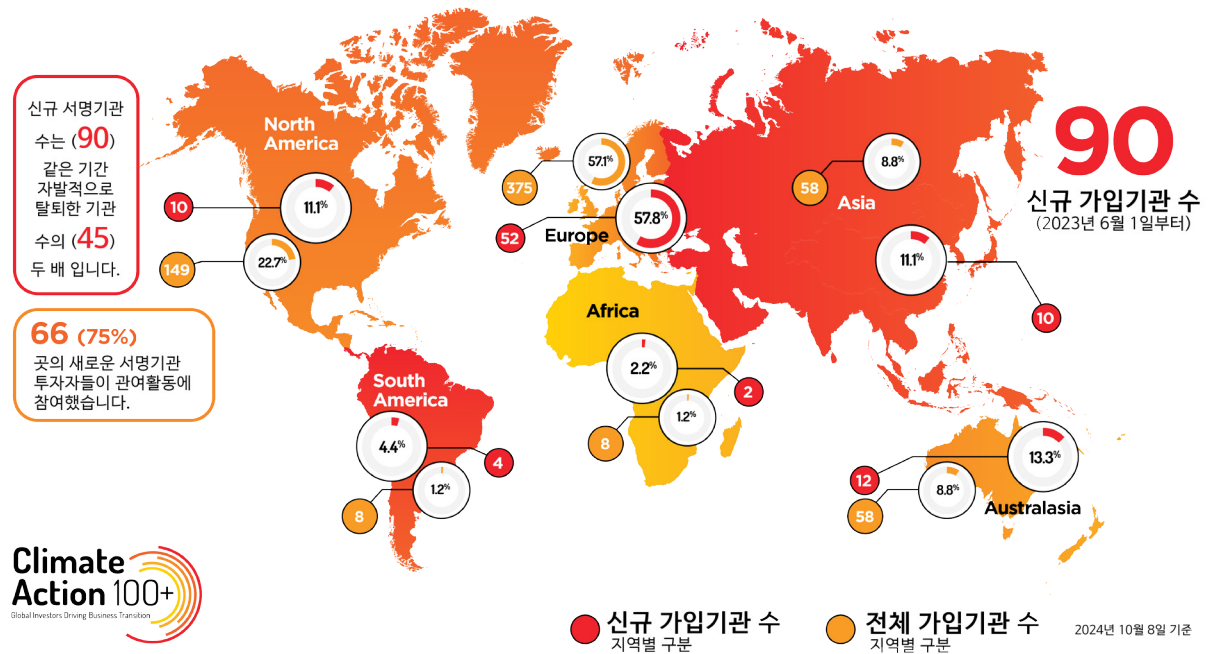


i) 신규 가입 기관의 글로벌 스토리

이 자료는 2024년 10월 Climate Action 100+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limate Action 100+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2023년 6월 이후 90개의 신규 기관이 가입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순증 19개 기관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신규 가입 기관의 지역별 분포는 아프리카 2곳, 아시아 10곳, 오스트랄라시아(Australasia) 12곳, 유럽 52곳, 북미 10개, 남미 4곳입니다.

신규 가입 기관의 4분의 3(75%)은 기업 관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투자자(Contributing Investor)'로 가입하였습니다. 참여형 투자자는 '서명기관 안내서(Signatory Handbook)'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업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관여 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신규 가입 기관의 증가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에 기록된 수치입니다.

ii) 신규 가입 기관 및 신흥 시장 가입 기관의 소회



퀼터 세비엇 (Quilter Cheviot)

“ Climate Action 100+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의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른 투자자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이 여러 산업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협력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Climate Action 100+와 같은 공동의 노력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도구입니다. 우리가 Climate Action 100+를 통해 주주관여를 실시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 간의 지식 공유와 산업 모범사례 강조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퀼터 세비엇 (2023년 6월 신규 서명기관)

중국초상펀드운용 (China Merchants Fund Management)

“ Climate Action 100+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Climate Action 100+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투자자 이니셔티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서명기관들은 기업의 소유자이자 투자자로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서명기관으로서 중국초상펀드운용은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 노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탄소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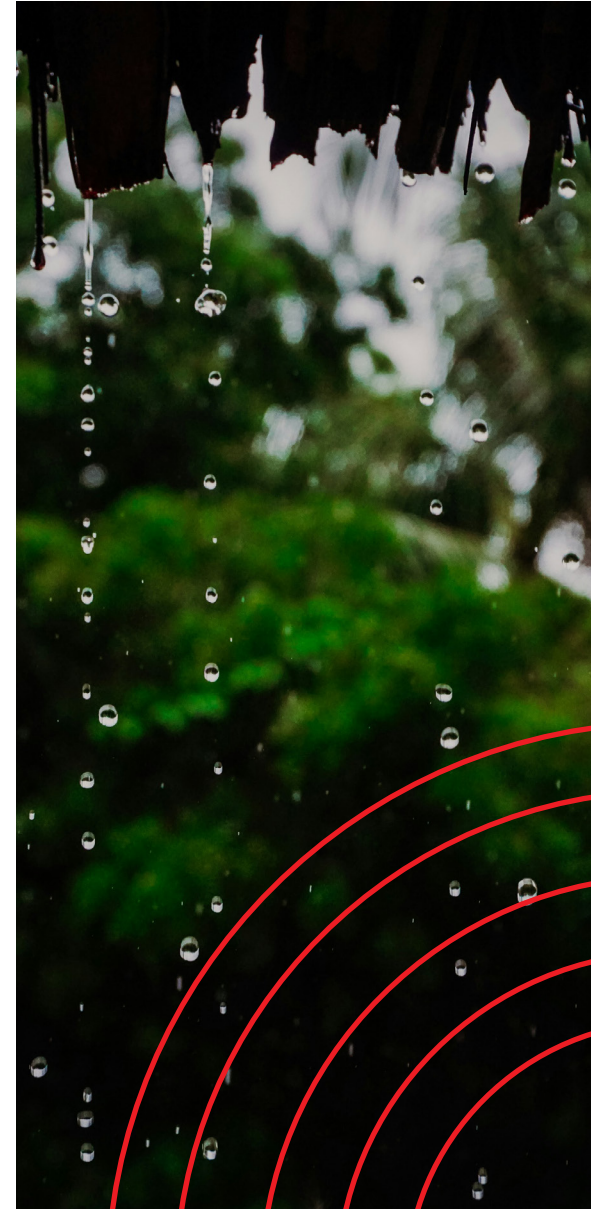
중국초상펀드운용(중국 내 운용자산[AUM] 기준 최대 신규 서명기관, 2023년 11월 신규 가입)

이든 트리 (Eden Tree)

“ Climate Action 100+는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여 수년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왔으며, 기후 관련 주주관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석유 및 가스 분야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이니셔티브가 화석연료 공급망 전반의 더 많은 기업들까지 확대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

피데우람 인테사 산파올로 프라이빗 बैंकिंग 자산운용 (FIDEURAM Intesa Sanpaolo Private Banking Asset Management SGR S.p.A)

“ 우리 넷제로 전략의 핵심 요소는 바로 주주관계 활동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의 탈탄소 경로와 장기적 지속가능성 전략 채택을 촉진하는데 있어 주주관계가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limate Action 100+와 같은 공동 주주관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넷제로 목표와 더 잘 정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며, 피투자기업 관점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Climate Action 100+ 가입은 우리 회사에 있어 진정한 이정표로, 주주관계를 통해 실제 진전을 이뤄내고, 투자자 간 프레임워크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지식과 역량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iii) 글로벌 웨비나 주요 내용



Climate Action 100+는 2024년 10월에 연례 글로벌 리뷰 웨비나 (Global Review Webinar)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웨비나는 서명기관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주주관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요 의제는 올해의 벤치마크 결과, 주주관여 사례 연구, 연례 주주관여 설문조사 분석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서명기관 여러분께서는 Climate Action 100+ 웹사이트의 '[서명기관 로그인\(Signatory Login\)](#)' 영역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

사례 연구



i) 올해 주요 기업 사례 선정



다농 (Danone)

리오 틴토 (Rio Tinto)

부미 리소시스 (Bumi Resources)

차이나 스틸 (China Steel)

전력 섹터에서 공정한 전환의 진전 (Progress of Just Transition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페멕스 (Pemex)

다농 (Danone)



다농은 기후 관련 로비활동 공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사의 직접적 및 간접적 기후 로비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 결과를 공개한 바 없던 다농은 2023년 초 Climate Action 100+의 기후 로비 활동 워킹그룹 (CLWG)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농과의 주주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은 2023년 4월, 공동 주주관계 기관이자 CLWG의 공동의장인 BNP파리바 자산운용(BNPP AM)이 다농과 기후 로비활동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시점이었습니다. BNPP AM은 이 회의에서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로비활동에 관한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 on Responsible Corporate Climate Lobbying)』과 관련 로비활동 공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다농은 2023년 5월 『다농의 기후변화 지지활동에 관한 입장(Danone Position on Climate Advocacy)』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다농의 지지활동 정책(Danone Policy on Advocacy)』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다농은 2023년도 CDP 응답을 통해 자사가 소속된 업계 협회의 로비활동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농은 InfluenceMap 평가 기준상 기후 로비활동 점수에서 100점 만점 중 50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표 참조). InfluenceMap의 평가는 Climate Action 100+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를 통해 다농은 2024년 2월 현재 InfluenceMap 기준 소비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InfluenceMap Danone Profile 평가 기준). InfluenceMap은 기업의 기후 관련 정책 로비활동 및 정책 관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주주관계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검토 프로세스	검토 평가 (직접 활동)	검토 평가 (간접 활동)
모니터링 및 검토	식별 및 평가	식별 및 평가
정렬 평가 방법	활동	활동
불일치 관리 프레임워크		

출처: Influence Map의 다농 (Danone) 기후 로비활동 공시평가 점수표 (2023년 2월 기준)

이 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limate Action 100+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오 틴토 (Rio Tinto)

리오 틴토(Rio Tinto)는 세계 최대의 금속 및 광산업체 중 하나이자 주요 철광석 생산업체로, 철광석 가공을 통한 철강 생산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Scope 3)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 상황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섹터 전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리오 틴토는 이러한 성과에 Climate Action 100+를 통한 투자자들의 주주관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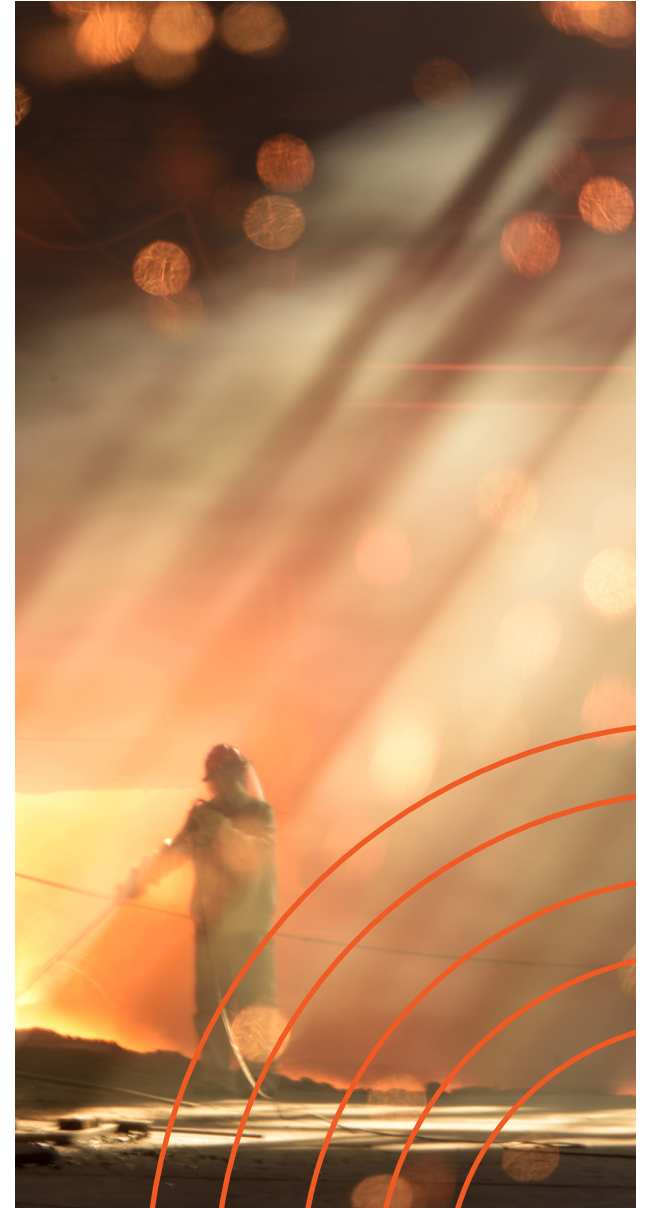
다양한 광산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대부분은 통상 제품 사용 및 가공에서 발생하는 스코프3 배출량이며, 이는 리오 틴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 틴토가 철광석 가공으로 배출하는 스코프3 배출량은 연간 400MtCO₂로, 회사 전체 탄소발자국의 65%를 차지합니다. 이 배출은 주로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며, 용광로에서 야금용 석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집약도가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탈탄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스코프3 배출량은 중대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간주되며, 투자자들은 리오 틴토가 저탄소 제강 경로에 부합하는 철광석 공급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프로젝트와 고객 협력 활동은 공시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 예상 성과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광석 생산업체들의 전환 계획에서 스코프3 배출량 감축을 위한 명확한 행동과 목표가 부족하다는 점은 투자자들과 의결권 자문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오 틴토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AGM) 이전과 그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공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철강 탈탄소화에 실제 지출한 금액과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지출액을 일정 범위로 제시
- 리오 틴토 주도의 철강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 그리고 철강 탈탄소화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적 기여 (상업적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표된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의 주요 이정표와 일정, 예상 지출 금액, 잠재적 감축 기회 (합작투자 파트너의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표된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이 산업의 감축 곡선과 넷제로 탈탄소화 시나리오에 부합할 경우의 잠재적인 감축 기회

리오 틴토에 대한 주주관여에 있어 이러한 주요 성과의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미 리소시스 (Bumi Resources)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신흥시장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지역사회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의 석탄 의존 시장에서 중요하며, 이 기업의 주요 투자자 역시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고위 경영진의 감독을 우선적인 주주관여 과제로 지속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부미 리소시스(Bumi Resources)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전문 채굴 기업입니다. 투자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회사가 전환 과정에서 다각화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영향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회사는 향후 광산 폐쇄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미 리소시스가 공정하고 적절한 근로조건을 촉진하고,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향상과 재숙련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보다 자세히 다뤘습니다.

회사는 아직 공정한 전환 원칙에 공식적으로 서약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관행은 지역사회가 충분히 고려되는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전환 계획에 대한 신뢰성 있는 투명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회사와 주주관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이나 스틸 (China Steel)

기후 솔루션에 자본을 배분하는 것은 기업이 탈탄소화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재 아시아 기업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기후 목표와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에 맞춰 과연 솔루션에 자본을 배분하고 있는지 그 투명성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명성 제고는 전환 경로가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는 아시아 기업들에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철강업체인 차이나 스틸 코퍼레이션 (China Steel Corporation, CSC)의 경우, 주요 투자자가 이 회사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주주관여를 펼치고 있으며, 조직의 회장 및 사장과의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탈탄소화 및 자본배분 전략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최근의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 평가에서 이 회사는 기후 솔루션에 대한 과거 및 미래의 자본 배분 계획을 공시함으로써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공시 프레임워크 하위지표 6.2 참고). 이러한 공시는 전기로 (EAF)의 사용, 그린 수소로 만든 직접환원철 (H2-DRI)의 사용, 그리고 다운스트림 산업을 통한 탄소 포집 및 활용 (CCU)과 같은 회사의 탈탄소화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회사가 다양한 탈탄소화 조치에 배분한 자본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주관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섹터에서 공정한 전환의 진전 (북미)

북미 지역에서 전력 부문 중점관리기업들은 지표 9번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에서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평가 대상 15개 전력 기업 중 11개 기업이 6개 하위 지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의미에서 ‘부분(Partial)’ 점수를 받았습니다. 북미 전력 부문에서 수년에 걸친 서명기관의 주주관여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전환을 핵심 주제로 삼아온 결과, 중점관리기업들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공정한 전환을 단지 인식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공정 전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Climate Action 100+ 북미 지부는 공정한 전환에 대한 테마별 주주관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주주관여의 목적은 저탄소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 기업들이 공정한 전환을 핵심적인 전략 요소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 중심 접근은 세레스(Ceres)와 책임투자원칙(PRI)에서 제공한 전문지식 및 연구를 기반으로 서명기관들의 주주관여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정한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관여는 북미 전력 부문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평가대상인 북미 전력 기업의 3분의 2는 2024년 평가에서 이미 공정한 전환을 위한 공식적인 약속(9.1a)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두 기업이었던 공정한 전환 계획 공시 기업(9.2a)은 세 기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2030년의 경제를 계획하면서 기업의 준비 상태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전력회사에게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은 단지 기존 사업모델의 발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과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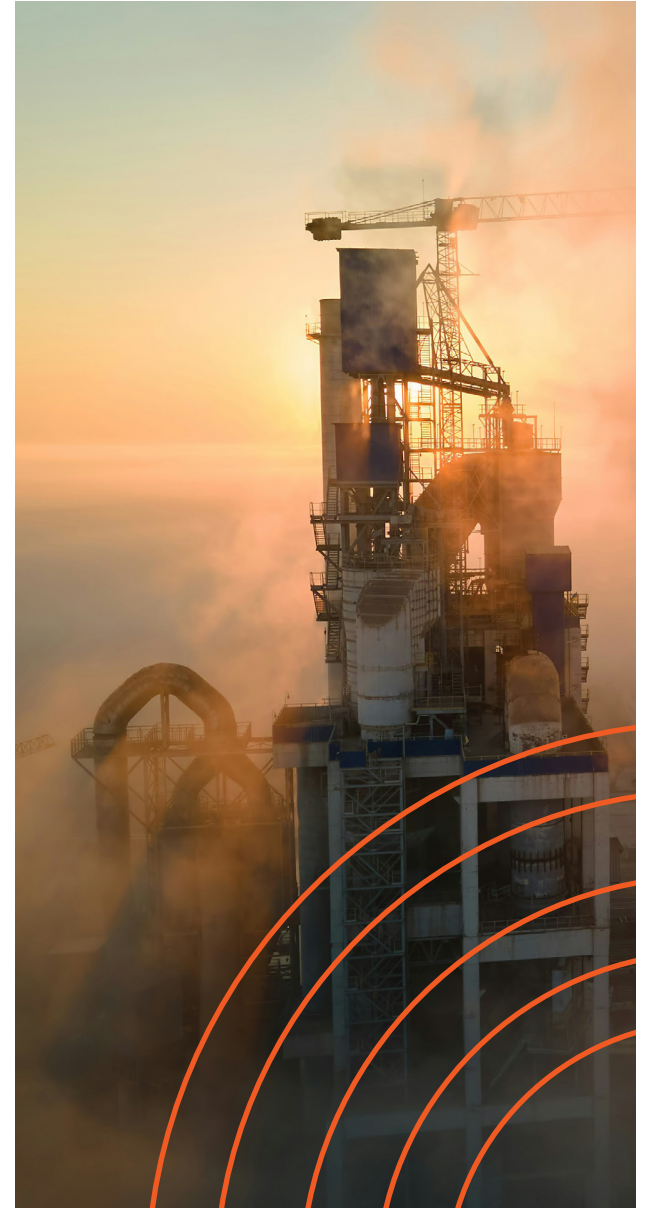
페멕스 (Pemex)

2024년 3월, Climate Action 100+ 투자자들은 페멕스 (Pemex)가 최초의 지속가능성 계획 (Sustainability Plan)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중요한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 약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페멕스의 지속가능성 계획은 외부 컨설팅 회사의 자문과 Climate Action 100+ 공동 주주관여 기관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제시하며, 2050년 넷제로 (Scope 1 & 2) 달성 목표, 추가적인 단기·중기·장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ISSB와 TCFD와 같은 국제 보고 표준에 따른 공시 강화 방안,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배분 프레임워크 구축에 필요한 조치, 새로운 목표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메탄 감축 전략 및 메탄 측정 데이터 품질 향상에 대한 약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멕스는 2020년부터 Climate Action 100+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체계적이고 투자에 중대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자 및 채권자 그룹으로부터 지속적인 주주관여를 받아 왔습니다. 일관되고 수준 높은 주주관여를 처음부터 정립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였지만, 지역 투자자와 대형 채권자들을 포함한 주주관여 집단의 확장은 대화의 품질과 지속성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페멕스는 기후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한 중요한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 페멕스는 이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감독을 위한 지속가능성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벤치마크의 지표 8번 (Indicator 8)에서 최초로 회사의 점수에 반영되었습니다.

페멕스의 지속가능성 계획 (Sustainability Plan)은 2024년 벤치마크 평가에서 지표 1~4번 및 지표 10번의 점수를 더욱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Climate Action 100+ 투자자들은 이 계획이 향후 더 많은 진전을 위한 강력한 토대라고 보고 있으며, 회사 및 새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주주관여를 이어가면서 페멕스가 기후 목표를 더욱 진전시키고, 석유 및 가스 기업을 위한 국제적 모범 사례와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시즌 사례 연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2024년에 Climate Action 100+의 ‘주주총회 시즌(Proxy Season)’ 웹페이지에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기후 전환과 관련한 로비 활동, 회계, 거버넌스 개선을 촉구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주주총회 시즌과 관련된 스튜어드십 활동으로는 주주제안 제출, 사전 입장문 발표,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질의 제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서명기관 투자자들이 주주참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고려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2024년 주주총회 시즌의 지역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지역 주요 사항

- **BHP 및 우드사이드 에너지(Woodside Energy)의 기후 관련 의결권 행사:** 2024년 호주 기업들에 대한 기후 관련 의결권 행사는 두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BHP의 기후 계획은 91%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반면,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계획은 58%라는 높은 반대표를 받았습니다. 우드사이드 에너지가 발표한 2024년 기후 전환 행동 계획(Climate Transition Action Plan)은 이전보다 더 포괄적인 공시와 스코프3 목표를 포함하긴 하였으나,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초기 전략에서 실질적인 개선이나 목표 상향으로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드사이드 에너지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우려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회사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사항

- **일본 제철(Nippon Steel) 및 토요타자동차(Toyota Motor)의 기후 로비 활동에 대하여:** 일본제철과 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기업의 기후 로비 활동에 관한 주주제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일본제철에서는 이러한 주주제안이 27.4%의 지지를 얻은 반면, 토요타자동차에서는 9.17%에 그쳤습니다. 일본 회사법상 지지율이 10% 미만인 주주제안은 앞으로 3년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토요타자동차의 경우, 이번 주주제안이 회장의 재선임 찬성률 하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타자동차 회장 재선임에 대한 찬성률은 2021년의 97.72%에서 계속 하락해 2024년에는 71.93%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주주제안을 정기주주총회(AGM) 개최 8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주주들이 제안의 철회 또는 수정을 협상하거나 의결권 행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지역 주요 사항

- **셸 (Shell)과 에퀴노르 (Equinor)에 대한 주주제안:** 셸 (Shell)에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제안을 제출한 총 27곳의 기관투자자 중 18곳이 Climate Action 100+ 서명기관이었습니다. 동 주주제안은 파리기후협정 목표에 맞춰 회사의 중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18.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략 및 자본 지출 관련 주주제안이 Sarasin & Partners LLP와 3곳의 Climate Action 100+ 서명기관에 의해 에퀴노르에 제출되었으며, 6.46% (유통주식의 29%에 해당)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에퀴노르에서 제출된 기후 관련 주주제안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 **르노 (Renault), 셸 (Shell), 토탈에너지 (TotalEnergies)에서 기후 로비 활동 관련 합의에 따라 철회된 주주제안:** 르노 (Renault)는 “늦어도 2025년 주주총회 이전까지” 자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소속 산업 협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관련한 투자자 성명 참조). 셸 (Shell)은 주주제안 초안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보다 넓은 지역을 포괄하도록 2025년 주주총회 이전까지 기업의 기후 로비 활동에 대한 검토를 갱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토탈에너지 (TotalEnergies)는 이전 주주관여팀 멤버들과 Climate Lobbying Working Group 구성원들의 주주관여의 결과로, 자사가 소속된 산업 협회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온라인 사례 연구 참조).

북미 지역 주요 사항

- **넥스트에라 에너지 (NextEra Energy)에 대한 기후 로비활동 관련 주주제안:** 넥스트에라 에너지 (NextEra Energy)에 대한 기후 로비 활동 관련 주주제안은 CCLA 투자운용, 머시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Mercy Investment Services), 레일펜 (Railpen)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32.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2024년 북미에서 제출된 기후 로비활동 관련 주주제안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사례로, 회사에 대해 이 사안과 관련한 주주들과 의미 있는 관여활동과 더불어, 제안을 통해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서던 컴퍼니 (The Southern Company)에 대한 임원 보상 관련 주주제안 철회:** 일리노이주 재무부 (The Office of the Illinois State Treasurer)는 서던 컴퍼니 (The Southern Company)의 이사회 보상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변화를 고위 임원의 보상 구성 요소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주주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무부는 협상을 통해 이 제안을 철회하는 대신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약속과 공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재무부의 사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노르웨이 정부는 에퀴노르 지분의 67% (2,012,080,08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마 및 섹터별 워킹 그룹

주요 워킹 그룹

주요 워킹 그룹

주요 워킹 그룹

i) 테마별 활동



Climate Action 100+는 서명기관들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테마별 주주관여 (Thematic Engagement)'를 도입하였습니다. 테마별 주주관여는 특정 주제나 이슈를 정해 여러 기업과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Climate Action 100+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 지표 관련 주제 (예: 기후 거버넌스, 공정한 전환, 로비 활동 등)
- 별도의 차별화된 관심 주제 (예: 메탄 감축 또는 국영기업 등).

테마별 주주관여의 목적은 벤치마크의 특정 지표와 관련해 기업의 성과 향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핵심 주제 (예: 전환 계획, 자본 지출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투자자-기업 간 주주관여 모델을 보완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테마별 주주관여는 또한 특정 주제나 테마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서명기관들에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테마별 주주관여는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 미팅의 빈도, 관여 방식, 연간 목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테마별 주주관여는 특정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요청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른 주주관여는 지식 공유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주관여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자자들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1개의 테마별 주주관여가 진행 중입니다.

테마	주관 네트워크
기후 관련 로비 활동	IIGCC
기후 회계	IIGCC
공정적 로비 활동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임원 보상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국영기업 - 아시아 외 신흥시장	PRI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국영기업 - 중국	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PRI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인도 공기업	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PRI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기후 회계 및 감사	Ceres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전력 부문)	Ceres
공정한 전환 (전력 부문)	Ceres

지역별 네트워크가 2025년에 현재의 테마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 새로운 테마를 추가 모색할 수도 있어 이 리스트는 변경 가능합니다. 최신 테마별 주주관여 목록은 Climate Action 100+ 웹사이트 내 '테마별 주주관여 (Thematic Engagements)' 신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25년 1분기에 오픈 예정입니다.



테마: 유럽의 기후 관련 로비 활동 주관 네트워크: IIGCC



2024 전략:

해당 활동을 통해 Climate Action 100+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의 「지표 7 - 기후 정책 관여활동 (Climate Policy Engagement)」과 관련한 InfluenceMap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럽 지역의 12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투자자들은 Climate Action 100+의 기업별 주주관여 리더들과 협력하여, 기후 관련 로비활동에 대한 검토 보고서 (Climate lobbying review)를 발간하도록 기업을 독려하기 위한 주주관여 활동을 강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 발간은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로비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에 요구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2024 성과:

2024년 12월 기준, 12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로비 활동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다른 4개 기업은 2025년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기업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니레버 (Unilever)**는 2023년 처음으로 기후정책 관여활동 검토 보고서 (Climate Policy Engagement Review)를 발표하였으며, 보고서는 매우 포괄적이면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니레버는 InfluenceMap 평가에서 100%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Climate Action 100+ 벤치마크에서 로비활동 평가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한 최초의 사례로,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 **다농 (Danone)** 또한 2024년 초에 이전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InfluenceMap 평가에서 50%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사례 연구 참조)
- **내셔널 그리드 (National Grid)** 역시 CLWG 구성원들이 주도한 수년간의 주주관여 및 단계적 확대 (escalation) 조치 끝에 최초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InfluenceMap 평가에서 21%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 **나투르지 (Naturgy)**와 **토탈에너지 (TotalEnergies)** 역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InfluenceMap의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테마: 북미 탄소 회계

주관 네트워크: 세레스 (Ceres)



2024 전략:

북미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대다수가 Climate Action 100+ 벤치마크의 회계 및 감사 관련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진전이 더딘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관여가 필요합니다. 2024년, 이 테마 활동에서는 진전이 느린 소수의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주관여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테마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주로 해당 기업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재무보고에 기후 관련 요소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규제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명확한 가이드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당국 및 표준제정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은 IASB, SEC 및 PCAOB에 의견을 제출하고, 자산제거 의무 (Asset Retirement Obligations, AROs) 인식, 중요 감사사항 (Critical/Key Audit Matters, CAM/KAMs),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2024 성과:

투자자들은 경영진, CFO, 이사회 수준에서의 대화를 통해 Climate Action 100+의 북미 석유 및 가스 기업 3곳과 주주관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여활동을 통한 진전은 2025년 Climate Action 100+ 벤치마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추적될 예정입니다.



테마: 호주 임원 보상 주관 네트워크: IG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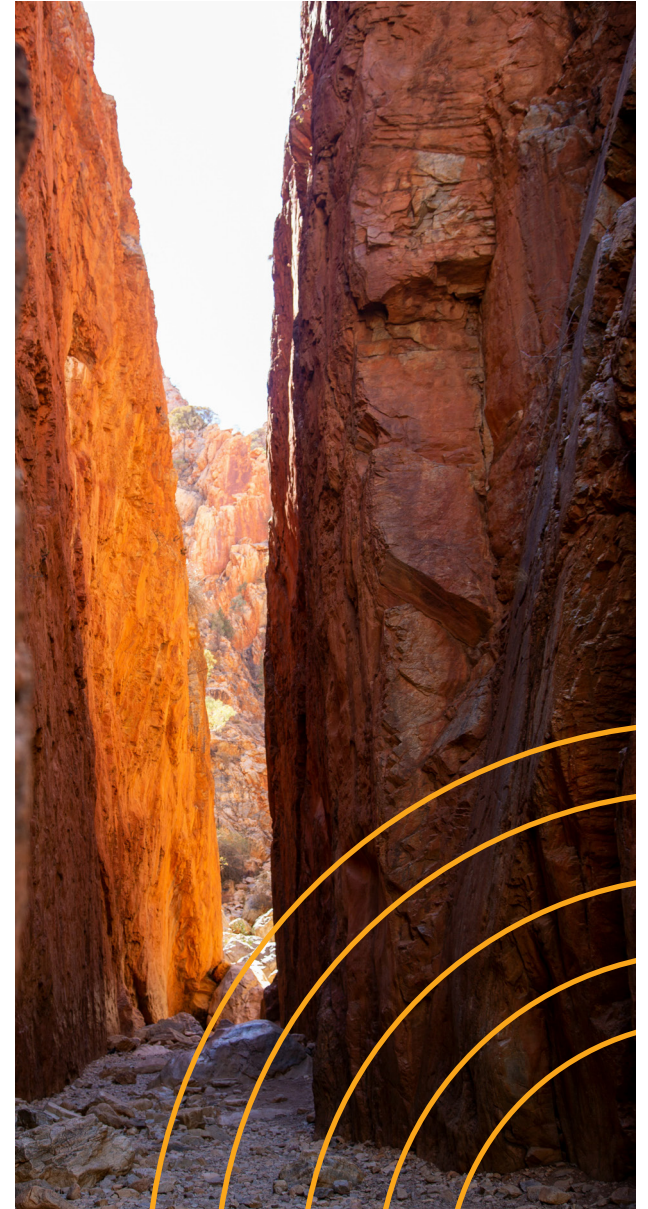
2024 전략:

이 활동의 목적은 기후 목표를 임원 보상과 연계하는 문제에 관해 투자자들이 기업과 보다 정교하게 주주관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획일적 접근법 (one-size-fits-all)의 한계를 인식하고, 원칙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투자자 워크숍과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6가지의 가이드 원칙 (Guiding Principles)과 관련 주주관여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호주의 Climate Action 100+ 중점관리기업 14곳의 정렬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호주 Climate Action 100+ 서명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이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공개 보고서가 함께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석 결과가 익명화되어 포함되었으며, 현재의 과제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사례 연구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2024 성과:

본 활동의 분석 및 공개 보고서는 대부분 호주 중점관리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 (AGM)가 열리기 직전인 2024년 말에 발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보상 계획에 미친 영향은 아직 명확히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호주 서명기관들은 이미 이 가이드 원칙 (Guiding Principles)을 피투자기업과의 주주관여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ii) 섹터별 활동



2021년, Climate Action 100+는 투자자들이 특정 산업 섹터의 리더 또는 기여 투자자로서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섹터 전략 (Global Sector Strategies)」이라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기존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섹터 관련 주주관계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분기에는 이 활동의 성격을 보다 더 잘 반영하고자 「섹터별 주주관계 (Sectoral engagements)」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에는 특정 섹터의 생태계 내 구조적 장애요소 (예: 정책, 가치사슬, 기술, 금융 등)에 대한 주주관계가 포함됩니다. 섹터별 주주관계 활동의 목표는 생태계의 구조적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정책과 같은 구조적 장애요소에 대해 가치사슬 전반에서 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섹터별 주주관계 활동은 관련 네트워크가 지역별로 조정하며, 「섹터별 주주관계 워킹그룹 (SEWG)」의 감독을 받습니다. 생태계 내 장애요소는 대체로 지역적 특성이 있으므로, 주주관계 역시 지역 단위 (예: 정책 이슈)로 실행됩니다. 또한 특정 섹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소규모 투자자 그룹이 “리더” 역할을 맡아 보다 원활한 관여활동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각 섹터의 리더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받습니다. 각 섹터별 주주관계 활동은 복수의 리더와 네트워크가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철강 가치사슬과 철강 정책 섹터를 담당하는 IIGCC 팀).

2024년 12월 기준, 5개의 섹터별 주주관계 활동이 진행 중이며 12명의 투자자 리더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섹터	장애 유형	주관 네트워크
철강	가치 사슬	IIGCC
철강	가치 사슬 및 정책	AIGCC 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
철강	정책	IIGCC
화학	가치 사슬	IIGCC
항공	지속가능 항공 연료	PRI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철강 정책 관련 섹터별 주주관여 (IIGCC)



배경:

IIGCC는 2024년 1월부터 유럽 철강 섹터의 정책적 장애요소에 중점을 둔 섹터별 주주관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 철강 생산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비협조적인 정책 로비활동이 유럽 철강 섹터의 전환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섹터별 리더들의 목표는 정책입안자들과 기업들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주주관여 요청사항 (특히 로비활동 관련)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섹터 리더가 함께 모여 주주관여에 사용할 정책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에는 유럽 철강 섹터의 핵심적인 정책적 장애요소와 요청사항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30명 이상의 투자자 집단, 외부 전문가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 성과:

이 섹터별 주주관여 활동은 정책 관련 직접적 주주관여를 주요 업무로 다룬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 Commission)와 직접 주주관여를 실시하여, EU 에너지총국 (DG Energy)과의 회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회의에서 EU의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약속받았습니다. 유사하게, 투자자 그룹은 유럽 최대의 철강 무역협회인 유럽철강협회 (Eurofer)와도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철강 섹터의 기후 전환을 위해 긍정적인 정책 지지 활동 (positive policy advocacy)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보고서는 유럽의 주요 철강 제조업체 6곳에 배포되었고, 기업들의 로비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네 차례의 후속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철강 가치사슬에 대한 섹터 주주관여 (IIGCC)



배경:

IIGCC는 2023년 가을부터 유럽 철강 섹터의 가치사슬 관련 장애요소에 초점을 맞춘 섹터별 주주관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철강 생산자들이 수명이 긴 자산 (long-lifespan assets)을 친환경 철강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철강 수요에 대한 더 나은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섹터 리더들의 목표는 주요 철강 구매자들이 2050년까지 넷제로 철강 구매를 약속하고 (이를 통해 철강 생산자의 업스트림 스코프3 배출량을 해결할 수 있음), 관련 목표를 공시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 성과:

섹터 리더들은 2023년 IIGCC와 회원들이 마련한 철강 구매 프레임워크 (Steel Purchasing Framework)를 기반으로 2024년 동안 25개 기업과 주주관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8개 기업은 2024년 3분기에 개최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해당 프레임워크의 요구사항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철강 가치사슬 및 정책에 관한 섹터 주주관여 (AIGCC)



배경:

2023년, AIGCC는 아시아 철강 가치사슬과 정책 관여활동에 대한 투자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점 영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 지역에서 저탄소 철강 생산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산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산업 프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다루기 위해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2024 성과:

2023년 10월 투자자, 철강 생산자 및 구매자들이 참여한 다자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기반으로, AIGCC는 아시아 철강 섹터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서 업종 간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2024년 4월에는 투자자 대화를 통해 철강 섹터 워킹그룹 (Steel Sector Working Group)을 설립하였고, 이와 함께 IGCC가 주관한 브리핑 및 패널 토론을 통해 다양한 섹터의 관점을 공유하여 철강 생산과 관련된 다각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투자자들과 AIGCC 대표들은 시장 수준의 주요 포럼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China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와 인도 그린철강 네트워크 (India Green Steel Network)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인 철강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탄소화 전략 및 기후 솔루션 진전 사항은 2024년 아시아 철강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크 평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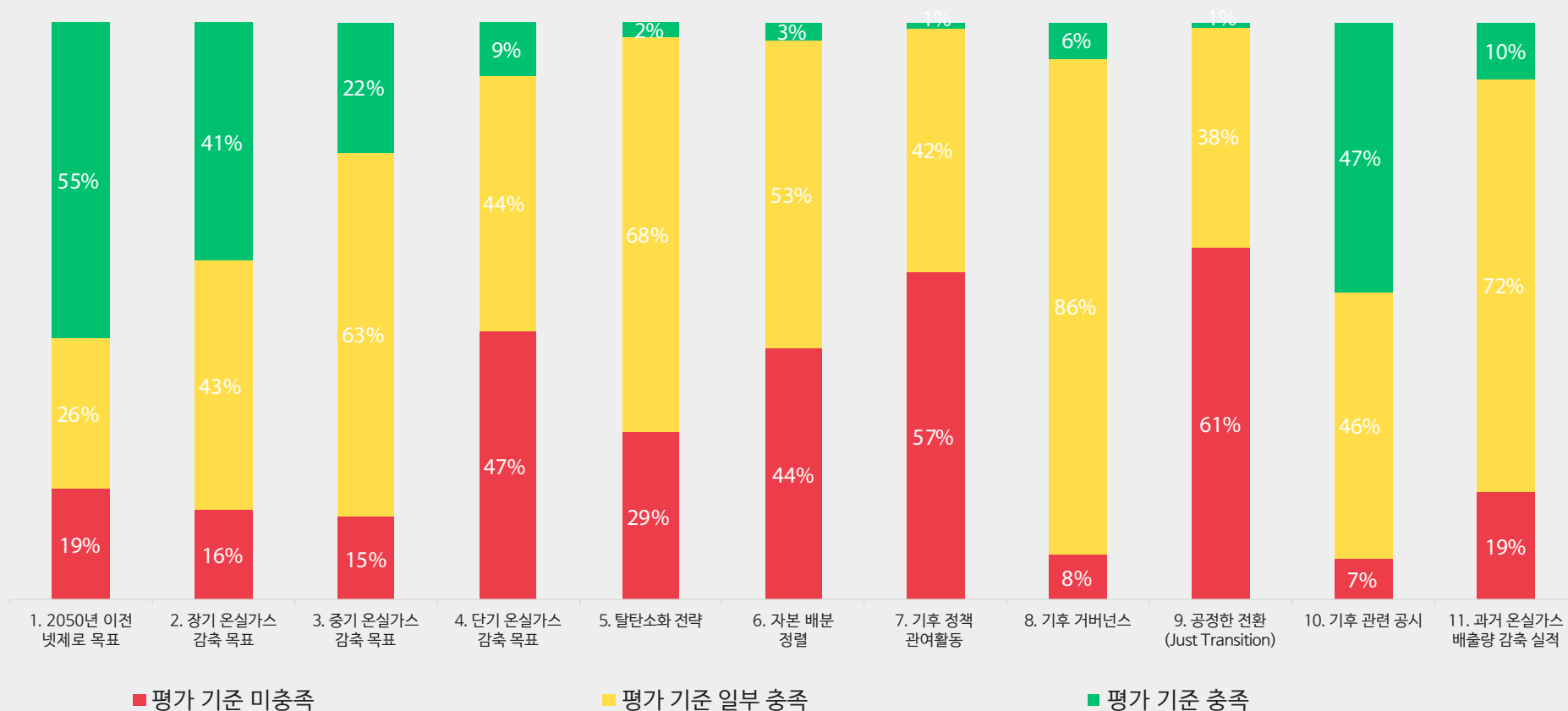
넷제로 (Net Zero) 기업 벤치마크 평가



2024년 10월, Climate Action 100+는 넷제로 기업 벤치마크 (Net Zero Company Benchmark)의 세 가지 핵심 상위 목표 (거버넌스 개선, 배출량 감축, 기후 관련 공시 강화)를 기준으로 중점관리기업 166곳에 대한 최신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기업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Climate Action 100+ 이니셔티브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 요약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데이터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표별 평가 결과



주석: 본 그래프의 비율은 총 165개 Climate Action 100+ 평가 대상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비율은 2023년 10월 평가 결과의 비율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평가의 비교에는 2024년 공시 프레임워크에 새로 추가된 기업을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150개 기업을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 요약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공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며, TCFD 및 ISSB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탄소 솔루션으로의 자본 배분 (capital allocation)과 공정한 전환 계획 (just transition planning)에 대한 보고는 진전이 있었으나, 포괄적인 전환 계획 수립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기후 리스크와 기회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024년에는 처음으로 기업들의 배출량 실적이 평가되었으며, 평가된 기업의 65%가 배출집약도 (emissions intensity)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배출 기업들이 보다 강력한 기후 전환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유틸리티, 자동차 섹터는 지속적으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기업의 투자 및 생산 계획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전환 계획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노출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Climate Action 100+ 벤치마크는 거버넌스, 배출량 감축,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기업들이 TCFD와 ISSB와 같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전략 및 재무 계획에 기후 리스크를 통합하도록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덕분에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더 투명하고 일관된 보고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환 계획과 실제 행동의 일치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0%

평가대상 기업 90%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 관련
증빙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표 8.1.a).

88%

평가대상 기업 88%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CFD) 혹은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
(ISSB)의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표 10.1.a).

80%

평가대상 기업 80%는
최소한 스코프 1 및 2 배출량에 대해
2050년 이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지표 1.1.a).
이는 최초 벤치마크 평가
(2021년 3월) 당시의 51%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든 평가대상 항공
기업 (총 5곳)은 지난
3년간 배출집약도를
감소시켰으며, 이들
모두 1.5°C 목표와
부합하였습니다.



Climate Action 100+의
평가 대상 자동차 섹터
기업 11곳 모두 지난
3년간 배출집약도를
감소시켰고, 이 중 5곳은
1.5°C 목표와 부합
하였습니다.



다각화된 채광 기업
10곳 중 5곳이 지난 3년간
배출집약도를 감소
시켰으며, 이 5곳 모두
1.5°C 목표와 부합
하였습니다.



전력 유틸리티 기업
29곳 중 22곳이 지난
3년간 배출집약도를
감소시켰으며, 이 중
12곳은 1.5°C 목표와
부합하였습니다.



시멘트 기업 11곳 중
8곳이 지난 3년간
배출량을 감소시켰으며,
이 중 3곳은 1.5°C
목표와 부합하였습니다.



철강 기업 9곳 중
6곳이 지난 3년간
배출집약도를
감소시켰습니다.

Climate Action 100+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과제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5년에 벤치마크를 더욱 정교화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의견 제공을 원하시면 다음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benchmark@climateaction100.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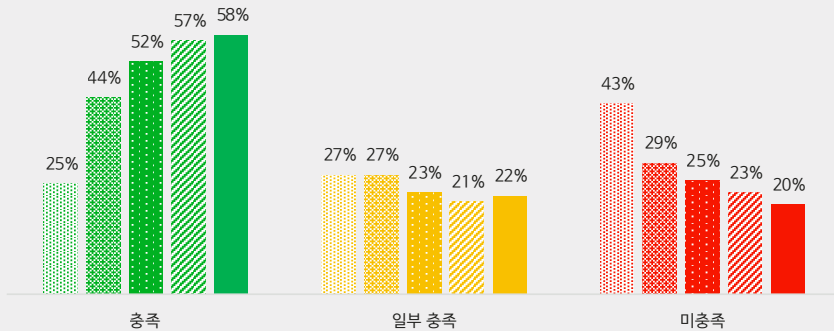
연간 진척 사항

공시 프레임워크가 최초 도입 이후 수정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진척 사항은 기업의 목표 설정과 관련된 4개의 지표에 대해서만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지표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에는 **단기 목표 설정에서 다소 하락한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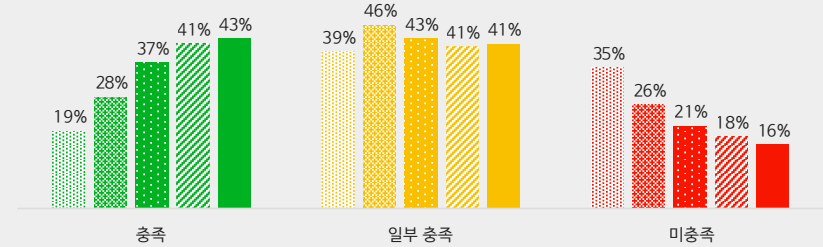
- 2021년 3월
- 2022년 3월
-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 2024년 10월

지표 1: 2050년(또는 그 이전) 넷제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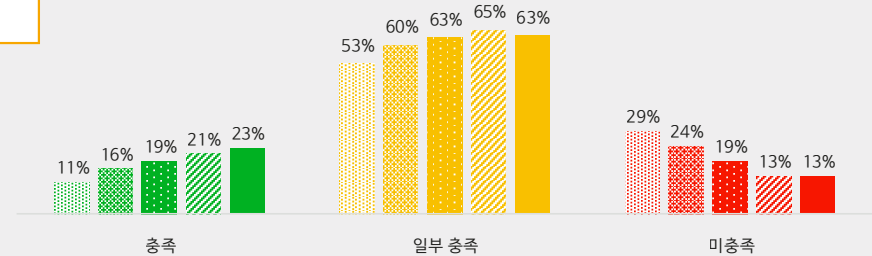


이 페이지의 그래프는 2024년에 평가된 165개 기업 표본을 기준으로 매년 진척 사항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중 9곳(6%)은 2021년 3월 평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의 '미평가(Not Assessed)' 점수(즉, 2021년 평가에서 '미평가'로 분류된 기업 6%)는 위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비율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평가 시기별로 합계가 정확히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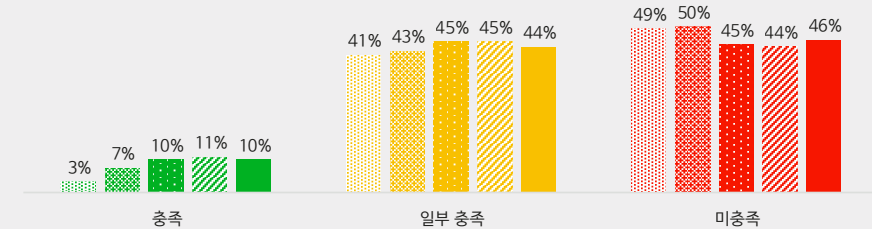
지표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3: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표 4: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참고 : 위 연간 데이터는 2024년 9월 10일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i) 넷제로 표준 (Net Zero Standards)

넷제로 표준 (NZS)은 섹터 중립적 (sector-neutral)인 Climate Action 100+ 넷제로 공시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환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섹터별 프레임워크입니다. NZS는 투자자, 산업 협회, 기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각 섹터가 가진 고유한 과제와 기회를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지표 (metrics)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주주관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NZS는 석유 및 가스 (O&G)와 다각화된 채광 (Diversified Mining, DM) 섹터를 대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유럽과 북미의 석유 및 가스 기업 10곳이 전환 경로 이니셔티브 (Transition Pathway Initiative, TPI)가 설정한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TPI는 NZS 석유 및 가스 섹터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NZS 다각화된 채광 (DM) 섹터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NZS의 활용성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평가하여 지표를 정교화하고, 섹터 및 기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IIGCC는 이러한 발전의 다음 단계를 주도할 예정이며, Climate Action 100+의 다른 파트너 네트워크에서도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